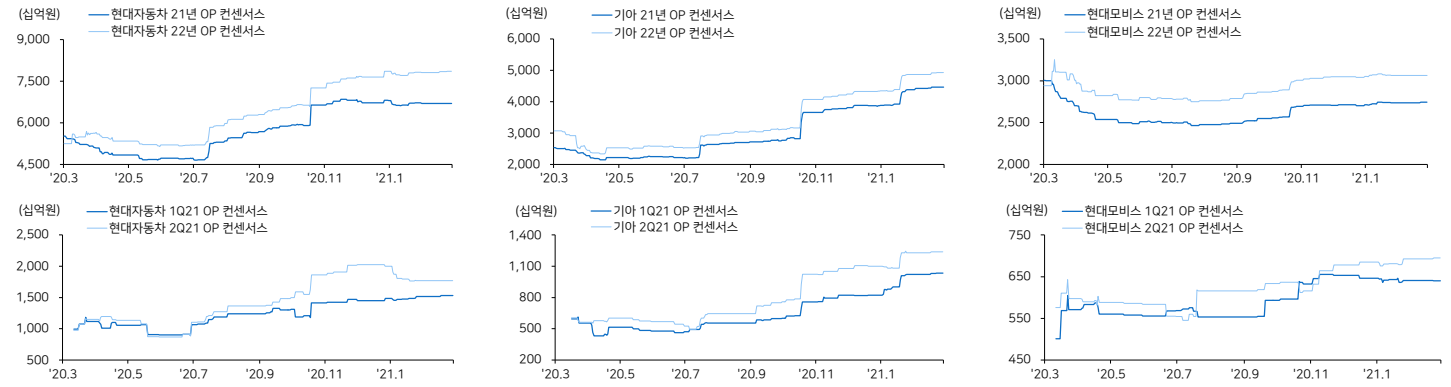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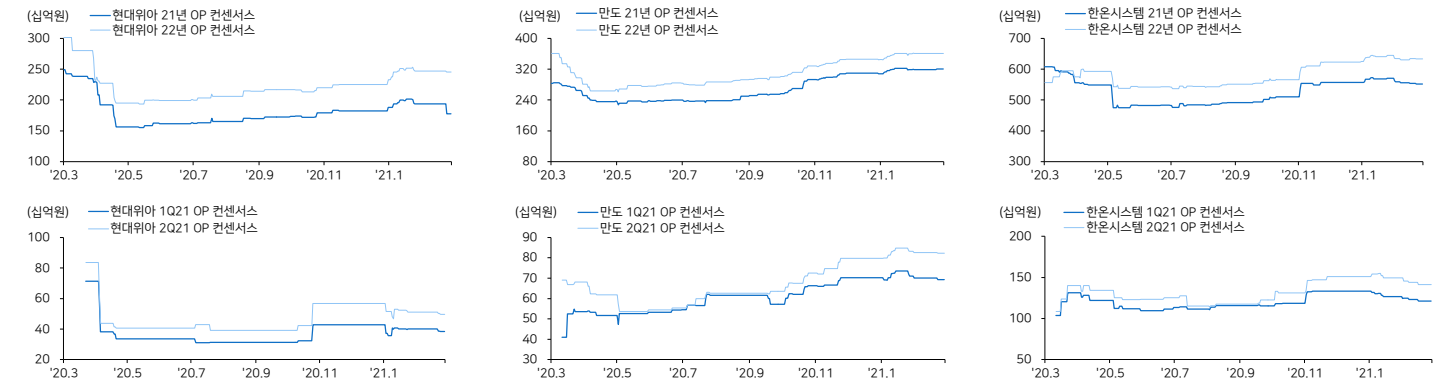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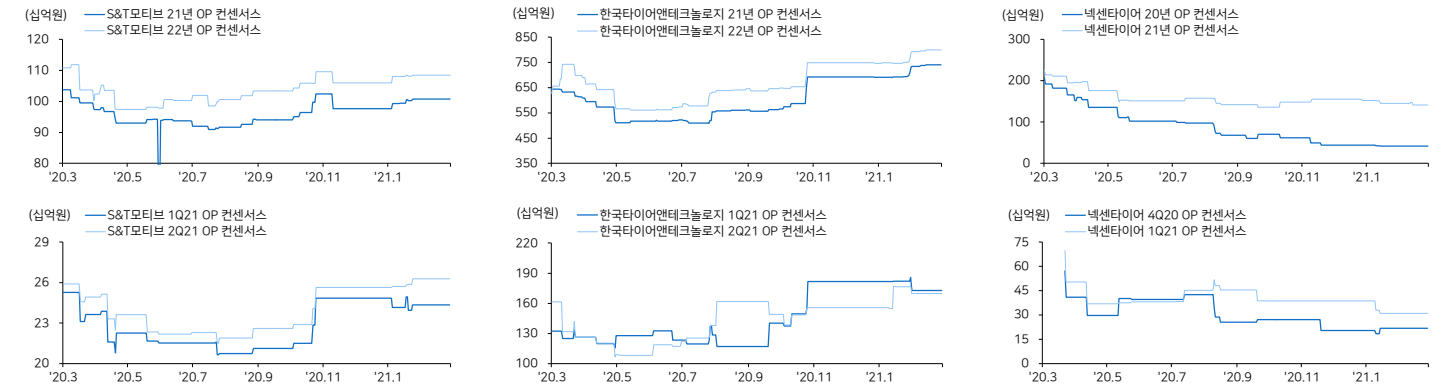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모셔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선정...자율주행 선도 (THE GURU)

현대차-엘티비 합자법인 '모셔벌'이 미국 경제매체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가 꼽은 '2021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됨. 교통부은 혁신기업에는 '테슬라', '웨이모', '루미아' 등이 포함. <https://bit.ly/3ckA9ht>

### 현대차 노사, 아이오닉5 생산라인 맨아워 합의... 본격 양산 기대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 생산라인에 투입할 인원수(맨아워·Man Hour)에 합의함. 합의는 기존 울산1공장 생산라인 작업자 일부를 다른 생산라인에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2PELFgJ>

### 현대차, 버스생산 일시중단 '코로나' 탓 재조정될 (아시아경제)

현대차가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1공장 고속버스 라인과 2공장 쉐라리 라인의 생산 중단을 들어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가 이유라고 밝혔으며 차량용반도체 수급난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ry1ZNL>

### 도로 만들 때 자율차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 (전자신문)

향후 도로 신설·확장·개량 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가 지도에 반영됨.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https://bit.ly/3qB9vPA>

### 한국·미국·싱가포르...현대차, UAM '삼각연대' 구축 (e대한경제)

현대차그룹은 2040년 1500조원 규모의 UAM 시장 선점을 위해 전세계 10개국 37개 공장, 1억대 이상 누적 판매대수 등 자동차 제조력과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을 기반으로 UAM 기체 생산·운영·인프라까지 아우른다는 복안. <https://bit.ly/2OHBUqk>

### 현대차 최초 고성능 SUV '코나N' 티저 공개 (한겨레)

현대차가 10일 SUV 형태의 첫 고성능차량 '코나 N' 티저 이미지를 공개함. 현대차는 올해 안에 아반떼와 투싼 차종에도 고성능 모델인 '엔라이온' 차종을 차례로 내놓는다는 계획. <https://bit.ly/3t3gtW4>

### 수업계, 자체 OS 플랫폼 개발 경쟁 가속... '테슬라를 잡아라' (THE GURU)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용 통합 OS 플랫폼 구축 주도권을 IT기업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OS 플랫폼 개발을 위한 경쟁에 진입하는 중. 운전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선 결국 OS가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https://bit.ly/3czm2F1>

### 폭스바겐, 5년 뒤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전기차 생산도 확대 (조선비즈)

VW는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가속화(ACCELERATE)'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 레벨 4 자율주행차 '트리니티'를 출시하고, 2030년까지 유럽 내 전기차 판매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34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0/202103100134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